



“VISION, 그것은 품는 자의 몫입니다” - (주)에너테크



박훈양 | 대표이사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동의 정세불안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각국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각국은 지금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글로벌경쟁시대에 에너지수급문제는 식량문제 못지 않게 중요하고 급박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에너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절약에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제 에너지절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주)에너테크의 박훈양 대표는 국내외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남보다빨리 인식하고 에너지절약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에너테크’를 설립하게 되었다.

발명특허 신기술로 탄생한 전력 저장장치인 에너지퍼(enerkeeper)는 가정, 가로등, 업소, 빌딩, 산업체 등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적용이 가능한 전기

절약 제품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시장에도 수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POSCO, 삼성, 한진중공업, 성신양회 등 대기업에 납품되는 유일한 제품으로 이미 여러 측면에서 그 독창적 기술력을 검증 받은바 있다. 특히 금년에는 해외시장 확장의 원년으로 100만\$의 구매약정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2007년 말까지 500만\$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직원의 40%를 연구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매출액의 10%을 R&D 부문에 투자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기술 개발이 기대된다. 현재 중국과 미국시장에서 기술 이전을 포함한 합작 생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 거점 전략에 대한 계획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에너테크는 지난 2002년 신제품개발시점을 기점으로 연구소의 연구활동과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에 몰두하여

발명 특허등록 2건, 실용신안건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독창적인 전문기술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술혁신을 통한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R&D에 몰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며 나아가 회사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업경영 초석으로 삼고 있다.

현재 절전제품시장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시장성 및 성장성이 매우 큰 반면 기술력은 매우 취약하며 선도 기업의 부재로 고객의 신뢰구축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중소기업규모이므로 자금 부담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2004년부터 기업참여는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해외시장에서는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 제품이 공존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역시 초기 발전단계로 현재까지는 국내기술과 큰 차이가 없다. 선진국 제품 역시 대부분 주파수 변환 방식의 제품으로 부분적인 절전만이 가능하며, 개발도상국은 이런 선진국 제품을 모방하는 수준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미진한 상황이므로 얼마든지 발전가능성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기기 사용시 발생하는 불평형, 고조파, 무효전력은 전력낭비 증가, 효율감소, 수명단축 등 전기적 손실을 가져 오는데, 에너키퍼는 전력낭비 요소인 불평형, 고조파, 무효전력을 제거하여 양질의 전력을 공급한다. 이는 변압기 또는 차단기 출력부문에 설치되어 어떤 종

류의 부하에서든지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존의 제품처럼 여러 대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한대만 설치되므로 매우 경제적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고효율 기어재는 고효율모터, 전자식안정기, 고효율 반사갯, 인버터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제품들은 각 기기마다 설치해야 하므로 많은 수량을 설치해야 하고, 이로 인해 유지관리 및 제품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원가회수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또한 절전효과가 몇몇 기기에 제한되어 있어 전체 전기절약 측면에서 본다면 그 효과가 미미하다. 이에 반해, 에너키퍼는 변압기와 1:1 직결 방식으로 어느 부하이든지 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의 장점이자 차별화 된 기술력이다. 특히 단일용량으로 최대 3,000kva 용량까지 설치가 가능한



Auto Transformer Winding 기술로 투자비가 저렴하여 투자비 회수가 단기적이며, 유지관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15년의 반영구적 수명으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설비의 효율증대와 수명연장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테크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질문에 박훈양 대표는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자신감과 열정을 보였다.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장기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 품질, 안전성 면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재육성, 혁신기술개발, 성공적인 파트너 발굴에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Vision! 그것은 품는 자의 몫입니다."